

방향성 자질을 결여한 방향부사의 효과적인 어휘교수전략* **

곽재용
육군사관학교

곽재용(2018). 「방향성 자질을 결여한 방향부사의 효과적인 어휘교수전략」,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9(3), 205-235.

초 록 본 연구는 고등학교 수준의 초급 스페인어를 학습하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접하게 되는 방향부사들이 방향성을 갖지 않는 용법들을 접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어려움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야기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외국어로서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교수자들이 스페인어에서 방향성을 결여하는 방향부사의 용법을 효과적으로 교수하는데 도움이 될 내용들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제로 스페인어의 방향부사가 방향성을 결여하는 현상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므로 본 연구는 스페인어의 방향부사가 드러내는 방향성 부재는 유럽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미주대륙 스페인어에서도 발견되는 것처럼 접두사 'a-'를 동반하는 처소관련 부사가 본 유적으로 정태성과 방향성을 동시에 갖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 사실에 기인함을 인식하고 스페인어의 방향부사에 대한 형태-통사적 접근이 방향부사의 의미-통사적 특성을 교수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핵심어 방향성, 방향부사, 어휘 학습 전략, 형태-통사적 접근

* 본 논문은 2018년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논의를 확장한 것임.

** 본 논문은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의 지원을 받았다.

I. 들어가는 말

특정한 장소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과의 대화, 글이나 지도 혹은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된 자료를 통해서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구두 표현이나 글 표현에서 모두 구체적인 묘사를 위해 장소에 대한 표현을 자연스럽게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맥락을 구성하고자 의미적이나 문법기능적인 측면에서 스페인어의 경우 전치사나 부사가 사용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스페인어 수준의 초급 스페인어 학습자들이 교수-학습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소위 방향부사가 정의와는 달리 방향성을 결여하여 위치부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방향부사로 정의되는 범주가 정의적 측면에서 위배되는 현상을 촉발하는 원인에 근거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대안적 교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방향부사와 위치부사의 일반적 특성

1.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방향부사의 학습 내용과 관련된 문제

『2015 개정 교육과정』¹⁾에 의거하여 집필된 일반계 고등학교 스페인어 교과서인 『스페인어 I(2018)』에서는 장소를 묘사하는 표현을 학습하는 부분으로 <그림 1>과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1) 교육부(2015)에서 고시한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6]』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을 본 연구에서는 지면관계상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

¿Dónde está el gato?



〈그림 1〉

Real Academia Española(2009, 2307(앞으로 RAE로 표기)와 RAE(2010, 581)는 장소의 부사(adverbios de lugar)는 지시적 부사(adverbios demostrativos: *aquí, ahí, allí, acá, allá, acullá*)와 처소관련 부사(adverbios de relación locativa) 두 부류로 구성된다고 기술하고 처소관련 부사는 다시 아래 (1)처럼 두 개의 하위분류로 나누어 기술한다.

- (1) a. 위치부사(adverbios de ubicación)
 - delante / detrás
 - encima / debajo
 - dentro / fuera
- b. 방향부사(adverbios de orientación)
 - adelante / atrás
 - arriba / abajo
 - adentro / afuera

RAE(2010, 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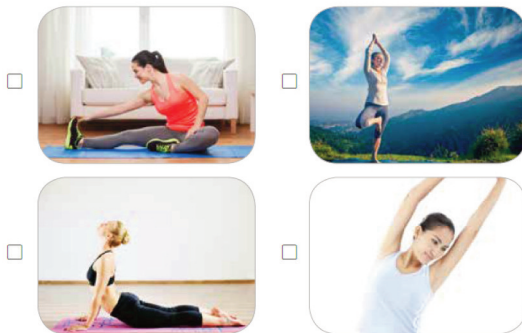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 어휘표’에는 위 (1)에 제시된 처소관련 부사들 중 *adentro*, *afuera*, *atrás*를 제외한 9개가 제시되어 있다. 『스페인어 I (2018)』에서는 (1a)에 해당하는 위치부사를 모두 소개하고 있지만, (1b)에 속하는 부사는 아래의 (2)와 같이 *adelante*의 관용표현 용례만이 제시되고 있어서 방향부사의 용법은 소개되지 않는다. 또한 *arriba*도 동일 교과서의 Vocabulario 부분(p. 171)에서 ‘adv. 위로’처럼 제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과서 내부에서는 ‘발음편’에만 소개되며 방향부사에 해당하는 어휘학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 (2) A : ¿Puedo entrar?
B : Sí, claro. ¡Adelante!

『스페인어 I』(2018, 77)

즉 『스페인어 I(2018)』은 위치부사에 대한 학습내용은 제공하지만 방향부사에 대한 학습내용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한편 『스페인어 I(2018)』과 달리 『스페인어 II(2018: 153)』에서는 <그림 2>와 같은 듣기 연습을 통해 방향부사 *adelante*와 *abajo*의 용법을 접하게 된다.

2 🔊 녹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그림에 번호를 써 봅시다.



<그림 2>

[녹음대본]

- ① Párese derecho. Levante los brazos. Luego una las palmas de las manos por encima de la cabeza. Doble una pierna y ponga la planta del pie en el muslo de la otra pierna. Mantenga el equilibrio.

- ② Siéntese en el piso y estire la pierna derecha hacia adelante. Doble la pierna izquierda y ponga la planta del pie en el muslo de la pierna derecha. Tóquese la punta de los dedos de la pierna derecha con la mano derecha. Mantenga la espalda recta.
- ③ Párese derecho. Levante los brazos y una las manos por encima de la cabeza. Luego, inclínese hacia la derecha, vuelva al centro y después inclínese hacia la izquierda.
- ④ Acuéstese boca abajo. Ponga las manos a los lados del pecho. Estire los brazos y levante el tronco.

『스페인어 I(2018)』과 『스페인어 II(2018)』는 위치부사의 예시와 그와 관련된 학습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제시되지만 이에 비해 방향부사의 학습은 <그림 2>와 [녹음대본]을 접하는 경우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가 이러한 예시들 역시 학습자들이 방향부사의 어휘적 용법으로 학습하기에는 좋은 예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RAE(2009, 2313)도 언급하듯이 [녹음대본] ④의 ‘*boca abajo*’는 일종의 관용 표현이므로 ④의 ‘*Acuéstese boca abajo*.’는 굳이 “입(boca)을 아래 방향으로”라는 의미로는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아래로 향하여 엎드리라는 표현으로 ‘*Acuéstese cara abajo*.’의 의미와 같은 관용적으로 사용된 표현이기 때문이다. *boca abajo*나 *cara abajo*의 의미와 반대로 얼굴을 위쪽 방향으로 드는 상황을 묘사하는 경우는 *boca arriba*와 *cara arriba*가 사용되지만 *cara*의 경우는 사람이거나 면이 있는 사물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반면 *boca abajo*와 *boca arriba*는 굳이 사람이 아니어도 또는 입이 없어도 쓰일 수 있는 표현이므로 관용표현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a. Nicanora le volvió cara arriba para que respirase bien.
- b. Lavé las copas con mis propias manos, las coloqué boca abajo en el escurridor para que chorrearan.
- c. Al volver boca arriba los naipes se nos desvela inapelablemente la trama del azar.

RAE(2009, 2314)

또한 [녹음대본] ②의 *adelante*의 사용에 있어서 학습자가 그 용법을 알고자 사전의 정의를 살펴본다면 더욱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웹사이트인 RAE(2014)는 *adelante*의 정의로 ‘adv. *hacia delante, hacia enfrente*’로 정의한다. 즉 *adelante*는 이미 정의상 방향을 함의하고 있지만 교재에는 *adelante*가 방향을 의미하는 전치사 *hacia*와 공기하는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hacia adelante*’와 같은 표현은 방향성의 의미가 두 번 이상 드러나는 의미적 잉여성이 느껴지는 표현이기도 하다.

RAE(2005)의 『Diccionario panhispánico de dudas』에서 제시하는 *adelante*와 관련된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자.

adelante.

1. Adverbio de lugar que significa ‘hacia delante, más allá’. En el español de España solo se emplea normalmente con verbos de movimiento, como corresponde a su etimología (de la prep. de movimiento a + el adv. de situación delante): «*Pero sigamos adelante hasta encontrar un claro*» (Landerio Juegos [Esp. 1989]). Para reforzar la idea de movimiento, se usa a veces precedido de las preposiciones *hacia o para*: «*Se inclinó vehementemente hacia adelante*» (Schwartz Conspiración [Esp. 1982]); «*Como en un vídeo cuyas imágenes pasaras velozmente, para adelante y para atrás*» (Delgado Mirada [Esp. 1995]). En estos casos, es preferible el uso del adverbio delante (*para delante, hacia delante*), pues *adelante* ya lleva implícita en su forma la idea de movimiento.

RAE(2005)는 어원적으로 *adelante*와 *abajo*가 이동(movimiento)의 의미를 갖는 전치사 *a*를 포함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이들 요소 앞에 전치사 *hacia*나 *para*가 사용되는 것은 *adelante*와 *abajo*가 이동의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동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기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hacia delante* > *hacia adelante*, *para delante* > *para adelante*와 같이 부사 *delante*의 용법에 대한 선호를 RAE(2005)가 부연하는 것은 부사 *delante*는 이동을 함의하지 않지만 *adelante*는 방향의 전치사의 동반여부와 무관하게 어원적으로 이동

을 함의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집필된 스페인어 교과서에는 방향부사에 해당하는 (1b)의 부사들의 용법과 관련된 학습내용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 어휘표’에는 위 (1b)에 제시된 방향부사들 중 *adentro*, *afuera*, *atrás*를 제외하고 *adelante*, *arriba*, *abajo*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1a)에 해당하는 6개 위치부사의 제시에 비추어 볼 때 어휘 제시의 균형을 고려하여 향후 개정될 교육과정에서는 기본 어휘표에 *adentro*, *afuera*, *atrás*의 수록 필요성이 제기된다.

2. 방향성이 결여된 방향부사의 용례

RAE(2010, 582)는 아래의 (4)의 예문들처럼 유럽 스페인어와 달리 미주대륙의 스페인어에서 (1b)에 속하는 방향부사가 전치사 ‘*de*’를 동반하여 보어를 취하는 현상을 언급하고 이러한 경우 방향의 의미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방향부사가 위치부사로 기능한다고 설명한다.

- (4) a. Jamás se me habría ocurrido que adentro de un manicomio uno pudiera sentirse mucho más seguro.
- b. Y te callás la boca, ¿entendés? Ni una palabra afuera de acá.
- c. Se ve en un estrado abajo de la pantalla del cine local.
- d. Se encontraba arriba de la escalinata.
- e. No me parece que se trate de jugar una carta atrás de otra como en el truco.
- f. Viene adelante de ellos..

RAE(2010, 582)

RAE(2005)는 그러나 위와 같이 방향부사가 전치사 ‘*de*’를 동반하여 보어를 취해 위치부사로 기능하는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En el español de América, en registros coloquiales o populares, no es infrecuente que *abajo* vaya seguido de un complemento con *de*: ⊗«El puente peatonal [...] se incendió cuando el avión pasó por abajo de él» (Expreso

[Perú] 1.8.87). Pero, en general, es uso rechazado por los hablantes cultos y se recomienda evitarlo en el habla esmerada; en esos casos debe emplearse *debajo*.

En el español de América, en registros coloquiales o populares, no es infrecuente que adelante vaya seguido de un complemento con *de*: ㉘
 «La mujer se puso adelante del auto para evitar que avanzara» (Clarín [Arg.] 30.1.97). Pero, en general, es uso rechazado por los hablantes cultos y se recomienda evitarlo en el habla esmerada; en esos casos debe emplearse *delante*.

RAE(2005)는 방향부사가 자신에 후행하는 전치사 ‘*de*’와 함께 보어를 취하는 경우를 모두 미주대륙의 스페인어에서 흔히 발견되는 특성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구조는 교양어 사용자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피해야 할 용례로 기술한다.²⁾ 그러나 이러한 RAE(2005)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의 대학에서 발간된 소위 문법교육서인 Gómez de Erice *et al.*(2005)의 『Gramática para todos』에는 다음과 같이 ‘*delante (de)*’와 ‘*adelante (de)*’의 혼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 (5) a. Coloque un adjetivo adelante del primer sustantivo que aparece.
- b. Al tercer sustantivo, debe colocarle un adjetivo adelante y un adjetivo atrás.
- c. Coloque delante el determinante que corresponda.
- d. Ahora, transcriba las calificaciones disponiéndolas delante del adjetivo en orden de méritos logrados de mayor a menor.

Gómez de Erice *et al.*(2005, 40; 58; 102)

(5a)에서는 *delante de* 대신에 *adelante de*가 사용되었으며 (5b)의 문장은 ‘*Debe*

2) RAE(2005)는 이러한 견해를 동일하게 아래의 예문들에게도 적용하여 *adentro*, *atrás*, *afuera*는 각각 *dentro*, *detrás*, *fuera*로 바꾸어 써야 한다고 기술한다.

- (i) a. ㉙«Lo encontraron calcinado adentro de su automóvil»
- b. ㉚«¿Ven esa ventana abierta, atrás de los escombros? Mi tía escapó por allí»
- c. ㉛«Sacó el balón afuera del campo de juego»

colocar un adjetivo delante del tercer sustantivo y un adjetivo detrás del tercer sustantivo.’의 의미로 쓰인 문장으로 동일한 명사 ‘*el tercer sustantivo*’를 전치격으로 실현하여 좌현으로의 외치를 통해 외현적으로 ‘*de + NP*’구조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는 구문이다. (5c)에서는 ‘*delante del sustantivo*’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맥락상 ‘*del sustantivo*’가 존재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며 (5d)는 일반적 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대학에서 출간된 교재에서도 (5a)와 (5b)와 같이 (1b)의 방향부사가 방향성을 갖지 않고 위치부사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먼저 RAE(2009, 2308)가 제시하는 예문들에 기초해 볼 때 미주대륙의 스페인어가 다음 (6)과 같은 고전 스페인어의 용법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

- (6) a. Pasó adelante de aquella sierra con la gente que le avía quedado de su batalla.
b. Se vna con él solo afuera de todas las casas, desnuda según la voluntad y apetito de todas ellas.
c. Envió su mano, y librome y sacome afuera de un piélagó.

RAE(2009, 2308)

(1b)에 속하는 부사들이 미주대륙 스페인어에서도 역시 방향성을 갖는 방향부사의 용법으로도 사용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왜 (1b)의 부사들이 미주대륙 스페인어에서 방향성을 갖지 않는 위치부사로의 용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1a)에 해당하는 위치부사가 방향부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1b)의 부사는 유럽 스페인어나 미주대륙 스페인어에서 위치부사로 사용되는 용례가 공통적으로 존재한다(cf. RAE(2009: 2307)). 이러한 용례는 주로 문장에서 방향성과 관련된 움직임과 무관한 의미의 술어가 사용되는 (7)과 같은 경우에서 관찰된다.

- (7) a. La antena está arriba.
b. No oyen bien los que están atrás.
c. Vive abajo, en el sótano.

RAE(2014)

주지하다시피 (7a)의 *arriba*는 (1b)의 부류에 속하는 부사이며 라틴어 ‘ad ripam’, 즉 오늘날의 스페인어로 ‘a la orilla’에 해당하는 표현에서 비롯되었다. RAE(2014)는 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arriba*를 기술하고 있다.

- (8) *arriba* Del lat. ad ripam ‘a la orilla’.
1. adv. En un lugar que está más alto o en la parte alta. *La antena está arriba.*
 2. adv. Encima de alguien o de algo. *Arriba de la mesa.*
 3. adv. En una situación social o jerárquica más alta. *Empezó de aprendiz y ahora está arriba en su empresa.*
 4. adv. Hacia un lugar que está más alto o en la parte alta. *Mira arriba y verás la bóveda.*
 5. adv. Tras un nombre que designa algo que puede recorrerse, hacia la parte alta de lo designado, o en ella. *Corrió escaleras arriba. Monte arriba hay un albergue.*
 6. adv. Tras un nombre que designa algo que avanza hacia un final, en sentido contrario a ese avance. *Navegamos río arriba, aguas arriba, corriente arriba.*
 7. adv. En un lugar que está antes en un texto escrito. *Como queda dicho arriba.*

위 (8)에서 소개된 정의적 특성과 그 관련 예시들은 *arriba*가 위치부사와 방 향부사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8)의 <2>에 제시된 예시 ‘*arriba de la mesa*’는 방 향부사 *arriba*가 자신에 후행하는 전치사 ‘*de*’와 함께 보어를 취하면서 결과적으로 방 향성을 갖지 않는 위치부사 *encima*와 동일한 의 미적 특성을 갖는 용례를 제시하고 있다. RAE(2014)가 (8)의 <2>에서 ‘*encima de alguien o de algo*’라는 언급을 한 부분과 RAE(2005)가 미주대륙 스페인어에 서 관찰되는 *arriba*의 용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을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En el español de América, en registros coloquiales o populares, no es infrecuente que *arriba* vaya seguido de un complemento con *de*: (X)«Le

dejó unas revistas del corazón arriba de la cama» (Guambia [Ur.] 27.3.04).
Pero, en general, es uso rechazado por los hablantes cultos y se recomienda
evitarlo en el habla esmerada; en esos casos debe emplearse *encima*.

RAE(2005)

위 RAE(2005)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미주대륙의 스페인어는 *arriba de*를 위치를 표현하는 *encima de*의 의미로 빈번히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RAE(2010)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기술하므로 결국 RAE(2014)가 이러한 현상에 입각하여 그 특성을 사전적 정의에 반영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³⁾

결론적으로 RAE(2005)의 방향부사에 대한 견해는 현대 유럽 스페인어의 기준으로 기술하는 것이므로 RAE(2009, 2010)에서 기술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미주대륙 스페인어에서 관찰되는 (4)와 같은 현상들은 비록 고전 스페인어에서 비롯되어 지금까지 남아있는 용법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현대 유럽 스페인어의 용례에 기초하여 그 문법성의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 중인 미주대륙 스페인어의 경향을 고려하여 용인 가능한 구조로 고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1b)의 부사들은 방향성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반드시 또는 항상 방향성을 나타내는 부사들이 아니므로 방향성을 요구하는 또는 방향성을 드러내는 술어와 함께 사용되는 맥락의 제공 없이 (1b)와 같은 외형적 형태에만 입각한 분류는 교수-학습과정에서 권장할 만한 내용으로 여겨질 수 없다고 본다. 주지하디시피 (1b)의 부사들은 모두 방향성과 무관한 표현들에 등장하는 경우들이 확연히 관찰되므로 이러한 경직된 분류는 오히려 학습자들에게 이해의 부담을 넘어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스페인어 I(2018)』(cf. <그림 1>)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

3) 그러나 RAE(2014)는 *abajo de*와 *afuera de*는 미주대륙 스페인어에서 발견되는 *debajo de*, *fuera de*에 해당하는 용법이 아닌 개별적인 관용구로 기술한다.

(i) *abajo de*

1. loc. prepos. Seguido de un nombre que expresa cantidad, por debajo de ella.
U. con el verbo en forma negativa. No costará abajo de mil pesos.

(ii) *afuera, o afueras, de*

1. locs. prepos. desus. además de.

사구’를 학습 내용의 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설정에서 위치부사의 용법만을 제시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나 ‘방향’과 같은 세부적 하위분류를 하지 않고 상위 개념인 ‘장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은 향후 교재 제작에서 해당 학습목표 및 내용의 제시에 대한 긍정적인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AE(2009; 2010)가 상위 범주로 장소의 부사(adverbios de lugar)를 설정하고 그 하위 부류로 지시적 부사와 처소관련 부사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어휘표에는 수록되지 않은 *adentro*, *afuera*, *atrás*를 향후 개정될 교육과정에 추가로 수록한다면 처소관련 부사의 목록 구성에 완성을 기할 수 있어서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의 교수-학습 내용에 균형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I. 접두사 ‘a-’를 동반하는 처소관련 부사의 교수-학습 전략 모색

1. 맥락적 배경과 관련된 방향부사의 방향성 부재 현상

Romeu(2014, 119)는 앞 II장에서 살펴본 RAE(2009, 2010)가 제시하는 처소관련 부사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⁴⁾

- | | |
|----------------------------|-----------------------|
| (9) a. <de-를 동반하는 AxParts> | b. <a-를 동반하는 AxParts> |
| debajo | abajo |
| delante | a(de)lante |
| detrás | atrás |
| encima | arriba |
| dentro | adentro |
| fuera | afuera |

Jackendoff(1983), Riemsdijk(1990), Holmberg(2002) Gehrke(2008), Tortora(2008), Svenonius(2006, 2010), Fábregas(2007), Den Dikken(2010), Pantcheva

4) Romeu는 <de-를 동반하는 Axial Parts>에 ‘*en medio*’도 포함시키지만 본 연구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2011) 등의 연구 등에서 전치사 특성에 대한 보다 나은 설명을 위해 내부 구조의 해체적 분석이 이루어져 오는 점에 착안하여 Romeu(2014)는 전치사가 가질 수 있는 내부구조에 Axial Parts(앞으로 AxParts로 표기)의 개념을 도입하여 AxParts를 어휘화하는 두 그룹으로 위의 (9a)와 (9b)를 제시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0) a. El niño está debajo (de la mesa).
b. El niño está abajo.

Romeu(2014: 119)

Fábregas(2007)⁵⁾는 (9b)의 부사들이 자동사적 성격의 부사(cf. Pavón Lucero (2003))로 간주되는 이유로 (10b)와 같이 소위 배경(Ground: cf. Talmy(1975))으로 작용하는 명사구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든다. 그러나 (9a)의 부사들도 기본적으로 배경의 명사구를 실현하지만 맥락상 그 생략내용이 확인될 경우 (10a)처럼 생략이 가능한 것은 RAE(2009)도 언급하는 부분이다. (10a,b)와 같은 예문들에 대해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스페인어 학습자들이 (11a,b)와 같은 예문으로 그 등가적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 *debajo*와 *abajo*를 구분하는 의미-통사적 기준을 찾기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국어의 기준에서 비롯될 수 있는 의미-통사적 구분의 모호성은 오히려 (11a,b)와 같은 한국어 표현을 학습자에게 먼저 제시하여 스페인어로 문장구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12a,b)와 같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 (11) a. 아이가 (책상) 아래/밑에 있다.
b. 아이가 아래/밑에 있다.

5) 기본적으로 Romeu(2014)가 제시하는 (9)의 두 가지 분류방식은 Fábregas(2007)도 같은 관점이지만 차이점이라면 Fábregas(2007)의 경우 앞, 뒤, 위,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갖는 *delante*, *detrás*, *encima*, *debajo*를 projective AxParts(cf. Zwart & Winter(2000)), 그리고 안과 밖을 의미하는 *dentro*와 *fuera*를 non-projective AxParts로 구분한다.

- (12) a. El niño está abajo (de la mesa).
b. El niño está debajo.

한국인 학습자들이 *debajo*에 후행하는 배경의 명사구가 맥락에 의거한 생략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알게 되고 미주대륙 스페인어의 *abajo*가 갖는 현상을 접하게 된다면 (10a,b)와 (12a,b)의 문법적 차이를 판단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단순히 맥락에 따라 배경의 명사구가 생략이 된다는 설명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배경의 명사구가 생략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여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과 관련하여 Fábregas(2007: 21-22)는 흥미로운 예시를 제공한다.

- (13) 배경: Let us imagine a context with two people, A and B, in the same room. A is standing high on top of a ladder, while B is sitting on a chair. Between A and B there is a bookshelf with two rows of books. In the lower row there is book 1, and in the row above it, book 2. Thus, from the perspective of speaker A, book 2 is below, while from the perspective of book 1, book 2 is above. Let us suppose that B knows where book 1 is and asks A to tell him where book 2 is. In this context, (14a) would be a possible answer, but not (14b).

- (14) ¿Dónde está el libro 2?
a. Abajo.
b. #Debaj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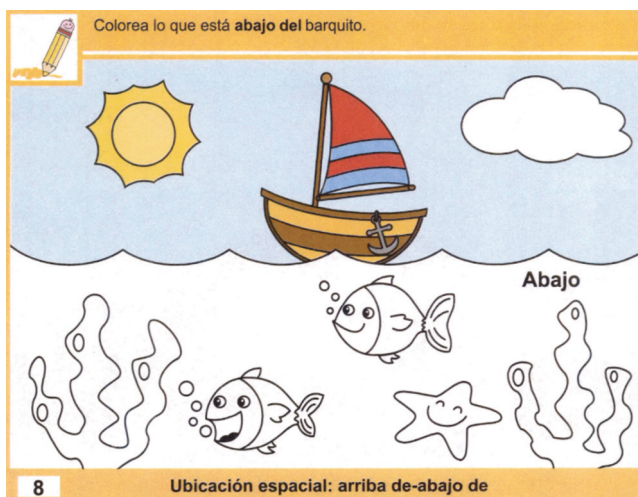
Fábregas(2007)는 (14a)가 관찰자 중심(observer-centered)으로 보아 ‘book 2’를 화자의 관점에서 아래에 위치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반면에 (14b)는 문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상 중심(object-centered)으로 보아 ‘book 2’를 ‘book 1’이라는 대상의 아래에 위치하는 것으로 묘사하게 되므로 (13)의 배경 설명에 비추어 볼 때 맥락상 옳바르지 않은 문장이라고 본다. 결국 (9a,b)의 장소부사들은 자동사적 성격과 타동사적 성격으로 구분하는 문법 범

주적 특성에 입각한 분류보다 구체적인 맥락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학습자들이 해당 부사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주대륙의 스페인어에서 (9b) 유형의 부사들이 위치부사로 사용되는 것은 단순히 (9a)의 형태를 대신에 일상생활에서 간헐적이거나 불규칙인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RAE(2005; 2009; 2010)도 언급하듯이 (9b) 부사들이 위치부사로 사용되는 것은 여러 상황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래는 멕시코에서 발간한 미취학 아동용 수학책 『¡Qué divertido!: Matemáticas preescolar 2』에서 찾아볼 수 있는 (9b) 유형의 부사들의 예시들이다.



〈그림 3〉



〈그림 4〉



〈그림 5〉

미취학 아동의 시기에 원어민으로써 이러한 공간 관계의 표현에 노출되는 것은 당연히 (9b)의 부사들이 방향성과 무관하다는 것을 맥락으로 습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미주대륙 스페인어 화자들은 움직임과 관련 없는 <그림 3>

~<그림 5>와 같은 상황에서는 (9b)에서 접두사처럼 동반하는 ‘a-’를, RAE (2005)의 견해와 달리, 움직임을 함의하는 전치사 ‘a’로 판단하지 않고 (9b)의 부사들을 당연히 위치부사로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미주대륙 스페인어 원어민의 이러한 직관과 비교하여 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한국어 조사 특성에 입각한 모국어 간섭현상으로 다른 언어권의 스페인어 학습자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쉽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혼돈스럽지만 ‘a-’를 마치 한국어의 처소격 조사 ‘-에’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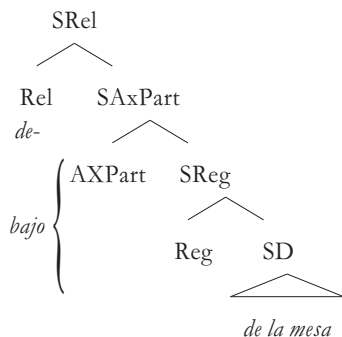
- (15) a. 나는 슈퍼마켓 위에 산다. vs. Vivo arriba del supermercado.
b. 나는 계단 아래에 있다. vs. Estoy abajo de la escalera.
c. 나는 집 밖에 있다. vs. Estoy afuera de casa.

비원어민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장소를 의미하는 명사인 ‘앞’, ‘뒤’, ‘위’, ‘아래’, ‘안’, ‘밖’에 조사를 붙이는 것으로 한국어에서 위치부사구나 처소관련 부사구를 만든다. 이는 한국어의 직관에서 보면 명사에 조사를 붙여 부사구를 어휘화한다고 보는 것으로 이는 Fábregas(2007)도 언급하듯이 AxParts 자체가 갖고 있는 명사적 자질과 상당부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encima*의 경우 단어 내부를 구성하는 독립적 단어로 ‘산 정상(the summit of a mountain)’을 의미하는 *cima*가 존재하고 *arriba* 역시 앞 II장 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원적으로 고전 스페인어에서 강가(the side of the river)를 의미하는 *riba*가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날의 스페인어에는 독립적인 단어로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사실은 *encima*나 *arriba*는 오늘날의 스페인어에 *cima*나 *riba*가 독립적인 단어로 존재하느냐의 여부를 떠나 *cima*나 *riba*가 각각 나타내는 그 의미가 *encima*나 *arriba*라는 부사의 의미에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Fábregas(2007)가 설명하는 것처럼 *a-*cima*와 같은 어형성이 불가능한 것을 보면 스페인어의 초서관련 부사는 AxParts만으로 처소성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처소관련 부사구의 어휘화와 관련된 도출적 특성에 대한 교수-학습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2. 처소관련 부사의 도출적 특성에 대한 교수자들의 접근방향

본 연구의 주제로 다루는 (9b) 부사들은 미주대륙 스페인어에서 전치사 ‘*de*’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배경의 명사구를 동반할 수 있는 부사들이며 모두 (9a) 부사들의 용법, 즉 위치부사로 기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ábregas(2007)는 기본적으로 타동사적 성격과 자동사적 성격의 차이에 입각하여 (9a)와 (9b)의 도출구조를 다르게 상정하지만 (12a)와 같은 문장에서 나타나는 전치사구 *abajo de*의 경우 (9a) 유형의 부사를 사용하는 전치사구 - *ex) debajo de* - 의 도출구조와 동일하게 보지 않고 일관되게 (9b)의 부사의 도출 구조를 갖는 것으로 주장한다. 이렇게 *abajo de*의 구조를 (9a)의 유형으로 보지 않고 (9b)의 유형으로 간주하는 입장은 Romeu(2014) 역시 큰 틀에서 동일한 견해를 갖는다. 복잡한 이론적인 세부 내용을 생략하고 Romeu(2014)가 제안하는 (9a)와 (9b)의 부사가 등장하는 전치사구의 도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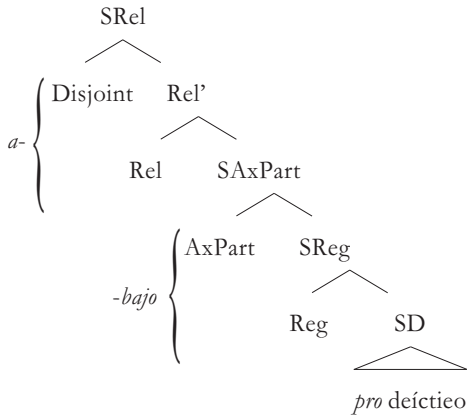
(16) *debajo de la mesa*⁶⁾



6) (16)과 (17)의 수형도에 사용된 약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미한다.

SRel = Sintagma Relación, Rel = Relación, SReg = Región, SD = Sintagma Determinante

(17) abajo



Romeu가 제안하는 (16)과 (17)의 구조는 각 기능범주의 핵이 독립적으로 각 음성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능범주의 연속체인 SRel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모든 형태-통사적 자질을 반영하는 어휘화과정을 통해 최종단계에서 문자화를 이루는 분산형태론(cf. Halle & Maratz(1993))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제안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16)의 경우 SRel에 지정어를 투사하지 않지만 (17)에서는 지정어의 위치에 'Disjoint'를 가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Romeu (2014)의 제안에서 Disjoint는 담화상에서 두 지점을 확인하게끔 하는 수식어 구로 작용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8) a. *Juan está a la casa.
b. Juan está a la derecha de la casa.

Romeu(2014, 126; 300)는 (18a)에서 전치사 *a*와 상태의 동사 *estar*가 공기할 수 없는 것은 처소구조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문법적이지만 이와 달리 (18b)가 전치사 *a*와 상태의 동사 *estar*가 공기할 수 있는 이유는 *derecha*가 하나의 하위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집(*la casa*)과 집의 오른쪽(*la derecha de la casa*)이란 두 지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다.⁷⁾ 따

라서 (18a)는 비문법적이지만 (17)과 같이 외현적으로 배경을 의미하는 PP를 동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PP에 해당하는 지시적 *pro*(*pro deictico*)를 가정하기 때문에 이 *pro*가 어휘화과정에서 하나의 지점을 형성하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Romeu는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장 역시도 (17)의 어휘화 과정 도출 구조를 갖는다고 본다.

- (19) a. La tienda está abajo de aquí.
b. La casa está abajo de la montaña.
c. La cafetería está abajo de casa.

Fábregas(2007)가 언급한 관찰자 시점에 해당하는 부사의 도출구조는 (17)에 해당하므로 *abajo*는 자신에 후행하는 외현적 요소가 필수적이지 않다. (19a)의 경우는 굳이 ‘*de aquí*’를 실현하지 않아도 실제로 맥락상 배경이 관찰자인 발화자가 위치하는 장소라는 것을 확인 가능함(cf. (14a))에도 외현적으로 PP가 실현되고 있다. (19b)나 (19c) 역시 배경의 명사구가 의무적이지 않은 *abajo*이지만 모두 배경의 명사구를 허용하는 구조이다. Romeu는 이렇게 (19a-c)의 문장 모두 그 어휘화과정을 (17)로 가정하지만 이러한 제안에는 실제로 (9b)의 부사들이 방향성을 가질 수도 있는 부사라는 특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7)의 도출구조에는 통사적으로 방향성 여부가 구분되는 특성은 반영되어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b)의 부사들에 등장하는 접두사 ‘*a-*’는 Fábregas(2007)의 언급처럼 스페인어의 전치사 ‘*a*’와 유사하며 어원적으로 방향을 의미하는 라틴어 전치사 AD에서 비롯되었지만 이 전치사는 방향뿐만 아니라 위치도 나타내는 전치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Romeu(2014)는 ‘*debajo de la mesa*’는 (16), 그리고 ‘*abajo de la mesa*’는 (17)에 의거한 도출 구조라고 제안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예문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방향성의 유무도 반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16)

7) Romeu의 분석에 따르면 ‘*la derecha de la casa*’는 (16)과 (17)의 구조에서 ‘*-bajo*’의 위치에 출현한다.

과 (17)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그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부분은 (16)과 (17)과 같은 구조가 어휘화과정에서 AxParts가 참여한다는 설명은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적어도 유럽 스페인어 화자와 미주대륙의 스페인어 화자들에게는 AxParts가 어휘화라는 형태-통사적 도출과정을 통해 처소관련 부사를 문자화하는데 참여하는 기능범주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특성은 한국어와 같이 장소 명사가 존재하는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스페인어 학습자들에게는 그 차이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들에게는 한국어의 경우 ‘위’, ‘아래’, ‘앞’, ‘뒤’, ‘안’ 그리고 ‘밖’을 의미하는 명사 어휘근에 처소격 조사를 통해 처소관련 부사구를 형성하지만 스페인어의 경우 ‘위’, ‘아래’, ‘앞’, ‘뒤’, ‘안’ 그리고 ‘밖’과 같은 독립적인 명사는 없으며 이들 의미와 관련되는 처소관련 부사는 AxParts가 어휘화 과정에 참여하는 기능범주의 연속체에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해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럽 스페인어의 ‘*debajo de la mesa*’와 같은 표현은 미주 대륙의 스페인어에서 관찰되는 ‘*abajo de la mesa*’와 함께 Romeu가 제안하는 (17)의 도출구조처럼 접두사 ‘*a-*’와 ‘*de-*’가 동일하게 기능범주 투사상 AxPart의 상위에 위치하는 요소로 인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처소관련 부사구의 도출구조는 이중적 기준이 아닌 단일한 기준으로 교수-학습과정에서 어휘화 과정을 설명하여야 학습자들이 유럽 스페인어와 미주대륙 스페인어에서 사용되는 용례들에 대한 용인가능성을 균형있게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성공적인 외국어로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어휘에 대한 지식이 그 어느 다른 기술보다 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며(cf. McCarthy(1990)) 본 연구가 주제로 다루는 처소관련 표현의 어휘들은 위치와 처소관련 부사들을 아우르는 장소의 부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데 있어서 해당 어휘 학습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Horwitz(1988)). 교수자는 Nation(2001)이 제안하는 <표 1>의 단계들과 같이 어휘 학습 전략을 통해 처소관련 부사들에 대한 교수-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Nation(2001, 218)의 어휘 학습전략 단계

General class of strategies	Types of strategies
Planning: choosing what to focus on and when to focus on it	Choosing words Choosing the aspects of word knowledge Choosing strategies Planning repetition
Sources: finding information about words	Analyzing the word Using context Consulting a reference source in L1 or L2 Using parallels in L1 and L2
Process: establishing knowledge	Noticing Retrieving Generating

장소의 부사를 학습하는 교실상황에서 교수자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인 비원어민 학습자들에게 지시적 부사인 *aquí, abí, allí, acá, allá, acullá*(cf. II장)들 중 상대적으로 고빈도 어휘인 *aquí, abí, allí*의 지식을 제공하고⁸⁾ 이와 함께 (9a)와 (9b)에 해당하는 어휘인 처소관련 부사들의 어휘학습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학습자들은 우연히도 지시적 부사가 모두 ‘a-’로 시작하는 외형적 특성을 접하게 되며 이로 인해 (9b)와의 외형적 특성을 비교하면서 장소의 부사는 모두 ‘a-’로 시작한다는 과잉일반화(overgeneralization)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9a)에 속하는 어휘들을 부사가 아닌 다른 통사적 범주로 잘못 간주하는 경우가 학습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 *aquí, abí, allí*가 스페인어의 전치사 ‘a’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결국 (18a)와 같은 문장을 문법적인 문장으로 잘못 판단하게 될 상황에도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편 처소관련 부사의 경우는 지시적 부사와는 다른 분석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을 보자.

- (20) a. The books are AT under the table PLACE.
 b. [PP_{stat} (at) [DP_{place} [AxiPartP under [PP P [NP_{place} the table [PLACE]]]]]]
 Cinque(2010, 5-6)

8)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표에는 *abí*는 수록되어있지 않다.

- (21) a. Los libros están debajo/abajo de la mesa.
b. [PPstat a/de [DPplace [AxiPartP bajo [PP de [NPplace la mesa [PLACE]]]]]]]

Cinque(2010)는 DP_{place}를 선택하는 정태적 의미의 전치사 AT이 비음성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20b)와 같은 구조를 제시한다. (20a)의 영어 예문에 해당하는 (21a)는 (20b)와 같은 도출과정을 통해 처소관련 전치사구가 어휘화된다는 점은 학습자들이 *abajo*의 경우 ‘a-’나 ‘de-’는 공통적으로 (20b)의 ‘at’의 위치에 나타나는 접두사적 요소로 판단하게 되므로 Romeu(2014)의 Rel의 핵의 위치와도 큰 차이를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스페인어의 처소관련 부사를 어휘화하는데 참여하는 ‘a-’나 ‘de-’는 더 이상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전치사로 문자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휘화 과정에 참여하는 요소이며 접두사로 기능할 뿐임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미주대륙의 원어민들 역시 *debajo de*와 *abajo de*를 형태-통사부에서 어휘화를 통해 문자화되는 일종의 복합전치사구(cf. Jackendoff(1990), Svenonius(2006, 2007, 2008))와 같은 요소로 직관적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21b)와 같은 형태-통사적 도출구조를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교수자들은 각 개별 단어의 의미적 그리고 형태-통사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수-학습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그림 3>~<그림 5>와 같이 삽화를 통한 맥락과 예시를 통해 한국어의 ‘앞/뒤’, ‘위/아래’, ‘안/밖’과 같은 의미적 대립의 표현이 스페인어에서도 가능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독립적인 단일 명사가 형태-통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다는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인 학습자들이 교수자에게 “스페인어로 ‘위’를 뭐라고 하나요?”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 취지가 ‘위’라는 한국어 명사와 의미적 등가를 갖는 단일 명사가 스페인어에서 어떤 것이 존재하느냐를 묻는 것으로 처소관련 부사의 도출과정에 필요한 어휘화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3. 원어민들간의 직관의 차이로 인한 과생성

RAE(2009, 2307)는 다수의 지역에서 대중적으로 *adelante*의 변형(deformación)으로 *alante*가 사용된다고 기술한다. 이 형태는 앞에서 Romeu(2014, 119)가 (9b)에서 ‘*a(de)lante*’로 제시한 이유와 같다. RAE는 이 형태가 사회언어학적으로 유효적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전치사 *para*와 함께 나와 축약형으로 사용되는 용례를 제시한다.

- (22) Ese es, hoy por hoy, el que se lleva p’alante a medio Albitaya.
RAE(2009, 2307)

이러한 *alante*와 같은 형태는 배경으로 기능하는 명사구를 (21)처럼 외현적으로 실현하지 않기도 하지만 다음 (23)의 예문들처럼 실현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 (23) a. Es que ustedes no se han enterrado, nosotros hace años, hace siglos que estábamos tratando de sentarnos en la parte de alante de la guagua.⁹⁾
b. ... no se veía ni a dos metros alante de uno ...¹⁰⁾
c. Aquí alante de esta casa hay una piedra, esa piedra de oro que está alante de esta casa, ahí abajo de esa piedra hay dos huevos, ...¹¹⁾

(23a-c)와 같은 예문들은 Fábregas(2007, 3)가 (24)에 기초하여 제시하는 문법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4) a. El libro está delante de la mesa.
b. El libro está alante (*de la mesa).

9) 예문 출처: Tomás Luis Vargas Morales(2003, 236), *Señal de primavera: novela testimonial de Vieques*, Isla Negra Editores.

10) 예문 출처: Hebe Monges, Alicia Farina de Veiga(1986, 124), *Antología de cuentistas latinoamericanos*, Ediciones Colihue SRL.

11) 예문 출처: Oliva Torres(1978, 116), *Los cuentos de Oliva Torres*, Taller de Títeres, Consejo de Desarrollo Científico y Humanístico de la Universidad de los Andes.

- (25) a. El chico tiene un coche delante. [Only in front of the boy]
b. ??El chico tiene un coche alante.

Fábregas(2007, 3; 21)

- (26) La mujer vive adelante de la casa de su hija pero en ese momento no estaba.¹²⁾

(24b)가 배경의 명사구를 실현하지 않으면 비문법적으로 판단되는 이유와 (25b)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완전히 비문법적인 것이 아닌 이유는 (23)의 ‘*alante de*’의 용법에 비추어 보면 문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Fábregas의 언급처럼 (25b)가 배경으로 기능하는 명사구 외현적으로 실현되지 않아서 관찰자 중심의 해석을 가지게 되므로 의미적으로 모호한 해석을 유발할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은 지시성과 관련된 용법에 대한 차이이며 (23)과 (26)의 예문들의 용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별 원어민간의 *alante*의 도출과정에 대한 직관적 차이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alante*와 같은 형태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어휘이므로 이런 형태에 비원어민들이 학습과정에서 노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원어민이라면 자주 접할 뿐만 아니라 직관적으로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가령 *detrás*를 [de+tras]의 구조로 간주하면서 *atrás*를 [a+tras]의 구조로 판단한다면, *delante*를 [de+lante]의 구조로 간주하여 [a+lante]라는 구조적 분석에 기인한 *alante*를 형성하게 되는 일종의 과생성(overgeneration)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결국 *alante*는 [a+de+lante]의 구조에서 *de*를 외현적으로 실현하지 않는 [a+ø+lante]와 같은 분석적 적용의 결과가 아니라 ‘*a-*’와 ‘*de-*’를 대립적 개념으로 보고 [a/de+lante]와 같은 구조를 통해 *alante*와 *delante*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는 직관적 판단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일종의 분석적 오류로 인한 과생성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alante*의 용례는 일반 책자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12) 예문 출처: <https://www.clarin.com/zonales/la-matanza/mejora-sobreviviente-pieza-explota-garrafa_0_Syds-DbxWm.html>: 14/03/2013 - 11:42 Clarin.comZonales

- (27) a. Descripción del ejercicio: De pie, por parejas uno al lado del otro con el brazo interno apoyado sobre el hombro del compañero y el brazo externo sobre la cadera. Realizar oscilaciones de la pierna externa hacia adelante y hacia atrás.¹³⁾
 b. Retorcía las manos y balanceaba su cuerpo hacia adelante y hacia atrás.¹⁴⁾

위 (27a,b)의 *hacia adelante*는 RAE(2005)의 견해에 비추어 보면 *hacia (a)delante*의 의미로 사용된 표현들이며 모두 방향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치사 *hacia*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예문 모두 접속사 *y*에 후행하는 *hacia atrás*를 동반하는 것은 등위구조를 통해 똑같이 방향성의 강조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hacia delante y hacia atrás*’라고 표현해도 무방하지만 *hacia delante*에서는 방향을 나타내지만 방향성의 강조는 없으므로 ‘*hacia adelante y hacia atrás*’와 같이 방향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RAE(2005)가 미주대륙의 스페인어에서 보여주는 *adelante*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한다는 점은 이 부사가 방향성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n el español de América, *adelante* se usa con mucha más frecuencia que en España para indicar estado o situación (‘en el lugar que está delante’), y aparece con normalidad en contextos en los que un español emplearía *delante*: «Tomaron lugar mis padres en los extrapontines del auto, [...] mientras don Homero tomaba el suyo en el asiento de adelante» (Fuentes Cristóbal [Méx. 1987]).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처럼 결국 ‘*hacia delante*’나 ‘*hacia adelante*’ 그리고 ‘*hacia alante*’에서 사용된 *delante*, *adelante*, *alante* 모두 반드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는 부사들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RAE(2009; 2010)가 제시하는 바처럼 방

13) 예문 출처: Serrabona Mas, M., Andueza Azcona, J.A. & R. Sancho Olivera(2004, 166), *1001 ejercicios y juegos de calentamiento*, Editorial Paidotribo, Barcelona: España.

14) 예문 출처: Ildefonso, B.C.(2012, 116), *Los Crimenes Del Motel Bitiri*, Palibrio.

향부사로 단언하기 어려우며 방향성은 전치사 *bacia*가 충분히 그 의미를 담당하므로 *delante, adelante, alante*는 공통적으로 위치부사로 작용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IV. 맺는말

RAE(2009; 2010)은 소위 ‘a-’를 동반하는 처소관련 부사들인 *adelante, atrás, arriba, abajo, adentro, afuera*를 방향부사로 규정하여 방향성을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어휘로 기술하고 그 특성 중 하나로 이들에 배경(Ground: cf. Talmy(1975))의 의미로 작용하는 명사구를 취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cf. Fábregas(2007), Romeu(2014)). 이러한 기술적 내용은 상당부분 유럽 스페인어의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로 미주대륙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의 경우 ‘a-’를 동반하는 처소관련 부사들이 배경의 명사구가 자신에 후행하는 위치에 출현하는 것을 허용하며 방향성이 없이 정태적 해석을 가지는 위치부사로 기능함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용법이 미주대륙 스페인어에서 실질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RAE(2005)는 일반적으로 교양어 사용자들(hablantes cultos)은 이러한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RAE(2009, 2010)의 입장은 RAE(2005)의 입장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부인하기 보다는 미주대륙 스페인어에서 사용되는 ‘a-’를 동반하는 처소관련 부사들의 용법에 대한 포괄적 인정으로 볼 수 있지만 문법적으로 정확한 구조로 인정하는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에서 스페인어를 학습하는 비원어민이 초급 수준에서 처소관련 부사를 RAE(2005)의 기술 내용에 입각한 유럽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원어민/비원어민 교수자를 통해 학습하고 중급 수준의 학습과정에서 미주대륙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원어민/비원어민 교수자를 통해 ‘a-’를 동반하는 처소관련 부사의 표현을 접하면서 얻게 되는 생각은 어떠할까? RAE(2005)는 교양어의 사용자가 유럽 스페인어, 즉 스페인어에서 사용하는 스페인어가 언어학적 지배공동체의 기준이 되는 교양어로 보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유럽 스페인어의 사용자가 미주대륙의 스

페인어 사용자보다 절대적으로 소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a-’를 동반하는 처소 관련 부사들의 용법은 이제 RAE(2005)의 획일적 기술에 기대는 것보다 RAE (2009, 2010)가 제시하는 다양한 용례의 존재를 인정하고 비원어민 학습자들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5),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6]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 이강국 외(2018), 『스페인어 I』, 전라남도 교육청
- 이강국 외(2018), 『스페인어 II』, 전라남도 교육청
- Den Dikken, Marcel(2010), “On the functional structure of Locative and Directional PPs”, Guglielmo Cinque and Luigi Rizzi(eds.), *The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 Vol. 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74-126.
- Fábregas, A.(2007), “(Axial) Parts and Wholes”, Monika Básić, Marina Pantcheva, Minjeong Son y Peter Svenonius(eds.), *Tromsø Working Papers on Language & Linguistics: Nordlyd 34.2, special issue on Space, Motion, and Result*, CASTL, Tromsø, pp.1-32.
- Gehrke, B.(2008), *Ps in Motion: On the Semantics and Syntax of P Elements and Motion Events*(LOT Dissertation Series 184), Utrecht: LOT Publications.
- Gómez de Erice *et al.*(2005), *Gramática para todos*, Editorial de la Universidad Nacional de Cuyo.
- Holmberg, A.(2002), “Prepositions and PPs in Zina Kotoko”, Bodil Kappel Schmidt, David Odden, and Anders Holmberg (eds.), *Some Aspects of the Grammar of Zina Kotoko*, Lincom Europa, München, pp.162-174.
- Horwitz, E.K.(1988), “The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of beginning university foreign language student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Vol. 72, No. 3, pp.283-294.
- Jackendoff, R.(1983), *Semantics and cognition*, Cambridge, Mass: MIT Press.
- Jackendoff, R.(1990),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Mass: MIT Press.
- McCarthy, M.(1990), *Vocabul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ation, I.S.P.(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 University Press.
- Pantcheva, M.(2011), *Decomposing Path, The nanosyntax of Directional Expressions*, Doctoral Dissertation, Tromsø University.
- Pavón Lucero, M.V.(2003), *Sintaxis de las Partículas*, Madrid: Visor.
- Páramo, G.(2004), *¡Qué divertido!: Matemáticas preescolar 2*, Editorial Limusa.
- Real Academia Española(2005), *Diccionario panhispánico de dudas*, electronic version in www.rae.es.
- Real Academia Española(2009),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Calpe.
- Real Academia Española(2010), *Manual de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Calpe.
- Real Academia Española(2014), *Diccionario de de la lengua española*, electronic version in www.rae.es.
- Riemsdijk, H.C. van(1990), “Functional prepositions”, Harm Pinkster and Inge Genée (eds.), *Unity and Diversity. Papers presented to Simon C. Dik on his 50th birthday*, Dordrecht: Foris, pp.229-242.
- Romeu, J.(2014), “Cartografía mínima de las construcciones espacial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 Svenonius, P.(2006), “The emergence of axial parts”, Peter Svenonius and Marina Pantcheva(eds.), *Nordlyd, Tromsø Working Papers in Language & Linguistics: 33. 1, Special Issue on Adpositions*, University of Tromsø, Tromsø, <http://www.ub.uit.no/baser/nordlyd/>, pp.49-77.
- Svenonius, P.(2007), “Adposition, Particles, and the Arguments They Introduce”, E. Reuland, T. Bhattacharya, and G. Spathas(eds.), *Argument Structure*, Amsterdam: John Benjamins, pp.63-103.
- Svenonius, P.(2008), “Projections of P”, A. Asbury, J. Dotlačil, B. Gehrke, & R. Nouwen(eds.), *Syntax and Semantics of Spatial P*, Amsterdam: John Benjamins, pp.63-84.
- Svenonius, P.(2010), “Spatial P in English”, Guglielmo Cinque and Luigi Rizzi(eds.), *The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 Vol.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127-160.
- Talmy, L.(1975), “Semantics and syntax of motion”, John P. Kimball(ed.), *Syntax and Semantics*, Vol. 4. Nueva York: Academic Press, pp.181-238.

- Tortora, C.(2008), “Aspect inside PLACE PPs”, A. Asbury, J. Dotlačil, B. Gehrke, & R. Nouwen, *Syntax and Semantics of Spatial P*, Amsterdam: John Benjamins, pp.273-301.
- Zwart, J. and Y. Winter(2000), “Vector space semantics: A model theoretic analysis of locative prepositions”, *Journal of Logic, Language, and Information 9*, pp.169-211.

관재용

육군사관학교

jykpato@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8년 11월 09일

심사완료일: 2018년 12월 18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27일

Effective vocabulary teaching strategies for the Spanish directional adverbs without directionality

Jaeyong Kwak

Korea Military Academy

Kwak, Jaeyong(2018), "Effective vocabulary teaching strategies for the Spanish directional adverbs without directionality",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9(3), 205-235.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fficulties of Spanish directional adverbs without directionality that face Korean Spanish language learners at the high school beginning level. It attempts to unfold the factors that cause these problems and to help Spanish as foreign language (SFL) teachers to come up with effective teaching methods in teaching Spanish directional adverbs without directionality. Actually, few studies have been realized with respect to the absence of directionality in the Spanish directional adverbs. In this study we will try to explain that the absence of directionality in the Spanish directional adverbs comes from the inherent duality between stativity and directionality in the locative adverbs with prefix 'a-'. not only in the European Spanish but also in the Latin American Spanish. This fact shows that a morph-syntactic approach in teaching Spanish directional adverbs is a good alternative in teaching semantic-syntactic properties of directional adverbs.

Key words directionality, directional adverb, vocabulary teaching strategies, morpho-syntactic approach